

형용사 파생 접미사의 어기 공유 현상

안 예 리

‘-스럽-’, ‘-롭-’, ‘-하-’는 같은 어기에 결합되어 의미에 차이가 없는 형용사들을 파생시키는 일이 있다. 이러한 예들은 저지(blocking)에 대한 반례로 이러한 현상의 발생 이유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이 연구는 말뭉치 용례 분석을 토대로 ‘-스럽-’, ‘-롭-’, ‘-하-’의 어기 공유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이다. 어기 공유 현상에 대한 계량적 분석 결과 이 세 접미사의 어기 공유는 90% 이상이 ‘-스럽-’과 ‘-하-’, ‘-스럽-’과 ‘-롭-’ 사이의 어기 공유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어기 공유 현상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을 ‘-스럽-’의 화용적 기능인 헤지(hedge)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어기 공유 현상을 언어 수행적 측면과 관련시켜 해석하였다. 또한 말뭉치에 나타난 이들 세 접미사의 어기를 ‘속성’ 어기와 ‘심리’ 어기로 나누고 그에 따른 어기 공유 현상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핵심 어휘: -스럽-, -롭-, -하-, 헤지(hedge), 어기 공유 현상

1. 서론

형용사 파생 접미사에 대한 앞선 연구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접미사가 갖는 의미, 어기의 범주 및 의미 자질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반면¹⁾ (1)에서와

* 이 논문은 2007년 10월 27일에 형태론 집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논문의 초고를 검토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유현경 선생님, 집담회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고영근 선생님, 최형용 선생님, 그리고 논문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1) ‘-스럽-’, ‘-롭-’, ‘-답-’의 의미에 대한 이 연구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김창섭(1984)과 유사하지만 그 화용적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이들 접미사는 문법적 요소이므로 이들이 갖는 의미는 어기의 어휘 의미적 속성이 풍부함을 나타내는 문법적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진다. 하지만 ‘-스럽-’은 특정한 화용적 기능을 갖는다

같이 하나의 어기가 여러 접미사에 결합 가능한 현상은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1) 가. 이런 신비스런 사건이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코 과학적으로 해명되는 법칙이 아니다.

나. 가랑잎과 비와 바람과 햇빛과 흙과 또 우리들이 알지 못할 어떤 신비로운 것이 한데 버무려져 빛어내는 것이었다.

다. 까만 숲이 한 끝만 빨강게 타는 것은 심히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1)의 용례는 ‘신비’가 ‘-스럽-’, ‘-롭-’, ‘-하-’와 결합되어 쓰인 예들로 이러한 어기 공유 현상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동일한 어기에 의미가 유사한 둘 이상의 접미사가 결합되어 쓰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1980년대의 여러 논의들은 이러한 어기 공유 현상을 보이는 접미사간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심재기(1982: 383)에서는 ‘-하-’에 비해 ‘-스럽-’은 [+未洽性]을 갖는다고 하였으며 민현식(1984: 114)에서는 ‘-스럽-’의 주된 의미는 [+狀態性]이지만 ‘-하-’의 대응형이 있을 때에만 [+未洽性]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한편 김창섭(1984: 151-152)에서는 ‘-답2-’, ‘-롭-’, ‘-스럽-’은 모두 어기의 속성이 풍부하게 있음을 뜻하지만 ‘-스럽-’이 갖는 의미는 보다 감각적인 면에서의 평가라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아로노프(Aronoff) (1976) 등 생성 이론적 논의에서 단어 형성 규칙의 적용 결과 얻어질 단어와 동일한 뜻의 단어가 이미 해당 언어 안에 있을 경우 단어 형성 규칙의 적용이 저지(blocking)된다고 한 가정에 충실하게 국어 형용사 파생 접미사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려고 한 논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용례들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동일한데도 단어 형성이 저지되지 않는 예들이 상당 수 발견되기 때문에 이광호(2007: 17)의 지적처럼 의미를 기준으로 저지에 접근하는 방식은 현실의 언어 사용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 연구는 실제 쓰인 자료들의 집합체인 말뭉치를 활용하여 계량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형용사 파생 접미사의 어기 공유 현상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어기 공유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²⁾. 이어서

는 점에서 다른 두 접미사들과 구별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2) 앞선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형용사 파생 접미사는 ‘-스럽-’, ‘-롭-’, ‘-답-’이지만 이 연구는 어기 공유 현상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실제로 어기 공유 현상을 많이 보이는 ‘-스럽-’, ‘-롭-’, ‘-하-’에 연구의 무게를 두기로 한다. 어기 공유 현상의 분석 대상에서 ‘-답-’을 제외한 것은 ‘-답-’은 어기의 품사나 어기의 의미에 있어서 거의 제약을 갖지

2장에서는 어기 공유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전단계로 말뭉치의 용례를 토대로 ‘-스럽-’과 ‘-롭-’이 결합되는 어기의 분포 및 의미에 대해 살펴본 뒤에 3장에서 형용사 파생 접미사의 어기 공유 현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다.

2. 어기에 대한 분석

이 연구에서 사용한 말뭉치는 김형정(2006)의 90만 어절 <축소 세종 균형 문어 말뭉치>이다. 이 말뭉치는 1,000만 어절의 21세기 세종계획 연구·교육용 현대국어 균형 말뭉치 중 약 900만 어절에 해당되는 문어 말뭉치를 각 장르 간의 구성 비율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 표본 추출(sampling) 작업을 하여 만든 축소 균형 말뭉치이다³⁾. 말뭉치에 나타난 ‘-스럽-’의 어기는 총 182가지, ‘-롭-’의 어기는 40가지로 그 목록은 <별첨1>, <별첨2>에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먼저 ‘-스럽-’과 ‘-롭-’이 결합된 고빈도 어기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2.2와 2.3에서 각 접미사가 결합되어 쓰인 어기의 의미적 특성을 검토할 것이다.

2.1. 고빈도 어기

‘-스럽-’과 ‘-롭-’이 결합되는 고빈도 10개 어기들의 쓰임을 살펴보면 그 분포상의 특징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⁴⁾.

순위	-스럽-			순위	-롭-		
	어기	빈도	비율(%)		어기	빈도	비율(%)
1	자연	70	9.1	1	자유	84	26.1
2	자랑	33	4.3	2	평화	22	6.8
3	조심	32	4.2	3	흥미	21	6.5
4	갑작	24	3.1	4	슬기	18	5.6
5	고통	18	2.3	5	풍요	15	4.7
6	걱정	17	2.2	6	다채	13	4.0
7	이상	16	2.1	7	순조	11	3.4

않아 사실상 모든 어기에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3) 이 말뭉치의 구성 과정에 대해서는 김형정(2006: 5)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말뭉치의 용례 검색을 위해서는 품사 주석 말뭉치 용례 검색기인 YConc Ver.1.3.0.(Yonsei Concordance, 개발자: 장석배)을 사용하였다.
- 4) <표-1>에서 ‘비율(%)’은 각 접미사의 총 사용 빈도 중 해당 어기에 결합되어 쓰인 빈도

8	짜증	14	1.8	8	예사	11	3.4
9	새삼	13	1.7	9	조화	11	3.4
10	의심	13	1.7	10	감미	9	2.8
총합		250	32.4	총합		215	66.8

〈표-1〉 ‘-스럽-’, ‘-롭-’의 고빈도 10개 어기의 사용 양상

〈표-1〉을 보면 ‘-롭-’의 경우 고빈도 10개의 어기들의 쓰임이 ‘-롭-’의 전체 쓰임 중 66.8%에 해당되지만 ‘-스럽-’의 경우에는 32.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는 90만 어절의 말뭉치에 나타난 각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의 쓰임을 ‘-롭-’의 경우는 10개의 어기만으로도 60%이상 설명할 수 있지만 ‘-스럽-’의 경우에는 10개로는 절반의 쓰임도 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롭-’의 경우 빈도가 가장 높은 특정 어휘, 즉 ‘자유롭다’가 ‘-롭-’이 결합된 전체 어기 중 1/4이상에 해당되어 그 쓰임이 특정 어휘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스럽-’의 경우 빈도 1순위인 ‘자연스럽다’가 전체 ‘-스럽-’ 빈도의 10%에도 미치지 못해 상대적으로 그 분포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스럽-’이 ‘-롭-’에 비해 갖는 생산성파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2.2. ‘-스럽-’의 어기

‘-스럽-’이 결합되는 어기의 의미적 속성을 다룬 김창섭(1984), 민현식(1984) 등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스럽-’은 실체성과 비실체성의 어기에 모두 결합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긴 했지만 주로 이루어진 논의는 실체성 어기 중에서도 특히 [+human]의 자질을 갖는 어기에 대한 논의였다. 이어서 2.2.1과 2.2.2에서는 말뭉치에 나타난 자료를 통해 ‘-스럽-’이 결합되는 어기가 갖는 의미적 속성을 분석해보고 분석 결과가 앞선 연구들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2.1. 어기의 비실체성

연구 대상 말뭉치에 나타난 ‘-스럽-’ 어기의 총 유형 수는 182종류이다. 이를 앞선 연구에 따라 실체성과 비실체성으로 구분해보면 “실체성”⁵⁾ 어기는 6개이며

의 비율을 나타내며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되었다.

5) 이 연구에서는 〈표-2〉에 “실체성”으로 분류된 어기들을 실체성이 아닌 비실체성 어기로 보지만 이 점을 검증해가는 과정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일단 이들을 “실체성”으로 지칭한다.

나머지는 176개는 모두 비실체성 어기이다.

	유형 수	빈도	예
“실체성”	6(3.3%)	12(1.6%)	남성, 바보, 병신, 속물, 여성, 영혼
비실체성	176(96.7%)	760(98.5%)	가증, 능청, 다정, 맛깔, 번다, 용맹 …

〈표-2〉 ‘-스럽-’의 “실체성” 어기와 비실체성 어기

〈표-2〉에 나타나 있듯이 “실체성” 어기는 ‘-스럽-’에 의해 파생되는 전체 형용사의 유형 중 3.3%에 불과하며 그것이 쓰인 빈도도 ‘-스럽-’이 쓰인 총 빈도 중 1.6%로 매우 적다. 위의 계량적 분석 결과가 시사해주는 것은 ‘-스럽-’의 어기로 “실체성” 어기와 비실체성 어기를 결코 대등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이다.

(2) 가. 그 프로그램의 남자 주인공을 통해 요새 희귀해진 남성스러운 남자 구정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나. 이번 차별 협박전화는 대단히 기분 나쁜 일이었고, 바보스런 인간이 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이들이 어른을 아이 취급해서 우쭐대며 좋아하는 일이 흔히 있는 것처럼 역시 속물스런 인간이 천재를 괴짜로 생각하는 일이 있고 <…>

앞선 연구에서는 (2)의 예에서와 같은 ‘-스럽-’을 “실체성” 어기에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 권숙렬(1984: 21-22)에서는 ‘-스럽-’은 ‘학생, 꿈, 사자’ 등 대부분의 “실체성” 어기에 결합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어른, 영웅, 바보’와 같은 일부 “실체성” 어기에 결합되기도 한다고 하며 이를 ‘-스럽-’이 주로 “실체성” 어기를 선행 요소로 하는 ‘-답-’과 그 속성을 일부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와 입장을 달리하여 과연 (2)의 예문에 나타난 ‘남성, 바보, 속물’이 “실체성” 어기인가의 문제를 먼저 검토해보고 ‘어른스럽다’ 등을 ‘-스럽-’ 파생 형용사의 예외적인 경우로 보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실체성의 개념과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앞선 연구들에서 ‘어른’이나 ‘바보’ 등이 실체성으로 다루어진 것은 이들이 [+human]의 자질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과 관련된다는 점과 그것이 실체를 나타내는가의 문제는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 그 이유는 고유명사, 일반명사, 대명사의 지시(reference)와 의의(sense)의 차이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⁶⁾. (3가)는 고유명사와 결합할 때, (3나)는

6) 지시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프레게(1975)가 제안한 ‘의의(sense)’는 ‘객관적 정보 내용의 개념(concept)’으로 이를 통해 실세계에 지시 대상이 없는 love, life와 같은 추상어나 not, but 등의 기능어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이익환 2000: 79-82).

대명사와 결합할 때 ‘-답-’과 ‘-스럽-’의 문법성의 차이를 보여준다.

(3) 가. 역시 책을 좋아하는 민국이{답다, *민국이스럽다}.

나. 그래서 그런지 그 날 남편의 접근은 평소의 그{답지, *스럽지} 않게 웬지 서툴다는 느낌을 줄 정도였다.

(3)의 고유명사 ‘민국이’나 대명사 ‘그’는 실세계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개체를 지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어른’이나 ‘바보’는 특정 실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들의 집합을 지시하며 개념을 의의로 갖는데 이는 모든 일반명사가 갖는 의미적 성격이다⁷⁾. ‘실체성’은 고유명사나 대명사 같이 실세계의 특정 개체와 지시관계로 직접 연결되어 언어 표현 자체가 바로 그 실체를 나타내는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시키고 ‘어른’과 같이 개체 집합을 지시하는 경우는 추상화된 개념을 의의로 갖기 때문에 비실체성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답-’과 ‘-스럽-’의 차이점이 보다 분명히 설명된다. 즉 ‘-스럽-’과 의미가 유사한 ‘-답-’이 고유명사나 대명사와 결합 가능한 데 비해 ‘-스럽-’은 그렇지 않은 이유는⁸⁾ ‘-답-’은 실체성 어기에, ‘-스럽-’은 비실체성 어기에 결합된다는 제약을 갖기 때문이다⁹⁾.

2.2.2. 비실체성 어기의 하위 유형

말뭉치에 나타난 ‘-스럽-’의 비실체성 어기들은 ‘심리’를 나타내는 어기와 ‘속성’을 나타내는 어기의 두 가지 유형으로 하위분류 된다¹⁰⁾. 심리 어기는 주어나 화자의

7) 이익환(2000: 81)에 설명된 고유명사, 보통명사, 형용사의 지시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언어표현	지시	의의
a. 고유명사	개체	개체 개념
b. 일반명사	개체들의 집합	개념
c. 형용사	개체들의 집합	개념

8) 인터넷상에는 간혹 ‘부시스럽다’, ‘삼성스럽다’, ‘한나라스럽다’, ‘노무현스럽다’와 같이 ‘-스럽-’이 고유명사와 결합한 예가 보인다. 여기서 ‘-스럽-’의 어기가 되는 고유명사들은 해당 고유명사가 갖는 특정한 속성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개념화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여타의 고유명사들과 달리 ‘부시’, ‘삼성’ 등이 추상화된 개념을 의의로 갖는다고 볼 수 있다.

9) 이러한 제약은 송철의(1988: 310-311)의 파생어 형성의 네 가지 제약, 즉 통사론적, 의미론적, 형태론적, 음운론적 제약 중 의미론적 제약에 해당된다.

10) 심재기(1982: 381)에서는 ‘-스럽-’의 어기를 동작성과 상태성으로 구분하며 ‘탐’, ‘사랑’ 등을 동작성 어기로 보았다. 그러나 형용사 파생 접미사가 동작성 어기에 결합된다면 ‘목욕’, ‘공부’, ‘산책’ 등의 다른 동작성 어기에는 ‘-스럽-’이 결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으며 이들 어기의 공통점은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심리 상태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대상의 속성에 대한 기술을 나타낼 수 있지만 속성 어기는 주어나 화자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일이 없으며 오직 대상의 속성만을 기술한다. 그렇기 때문에 (4가), (4나)에서와 같이 심리 어기는 ‘나는’이라는 경험주의 통사적 실현이 자연스럽지만 (4다), (4라)에서와 같이 속성 어기의 경우에는 경험주의 심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이 실현될 경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¹¹⁾.

(4) 가. (나는) 그 일이 창피스럽다.

나. (나는) 그 일이 염려스럽다.

다. 그는 음흉스럽다. / ?나는 그가 음흉스럽다.

라. 그 아이는 요망스럽다. / ?나는 그 아이가 요망스럽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분류된 ‘-스럽-’의 어기는 다음과 같다.

	유형 수	비율	예
속성	133	73.1%	음흉, 경사, 우직, 인자, 조신, 태연, 고집, 바람직, 장난, 뻔뻔, 요망, 허풍, 혼돈, 맛깔, ...
심리	49	26.9%	창피, 미안, 민망, 송구, 죄송, 감동, 감탄, 염려, 절망, 존경, 혐오, 소망, 감격, 당혹, ...

<표-3> ‘-스럽-’의 비실체성 어기의 하위 유형

‘-스럽-’의 비실체성 어기 중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는 어기는 73.1%, 화자나 주어의 심리를 나타내는 어기는 26.9%로, ‘-스럽-’은 속성을 나타내는 어기에 주로 결합된다.

(5) 가. 저런 나쁜 녀석, 어쩌면 저렇게 뻔뻔스러울까?

나. 여기 이 우직스럽기 짝이 없는 짐승을 뺨골 산 호랑이하고 한우리에 넣어서 맨몸으로 격투하는 재간을 가르칠 작정이오.

다. 어느날 볼테르는 샤뜨레 부인에게 러브 레터 대신 다음과 같은 장난스런 시를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5)는 ‘-스럽-’이 속성을 나타내는 비실체성 어기에 결합되어 쓰인 용례로 (5가)에서 ‘뻔뻔스럽다’는 ‘저런 나쁜 녀석’의 속성을, (5나)에서 ‘우직스럽다’는 ‘여기 이 짐승’의 속성을, (5다)에서 ‘장난스럽다’는 ‘볼테르가 샤뜨레 부인에게 보낸 시’의 속성을 나타낸다.

(6) 가. 젊은 십 년을 모두 노동운동에 바친 그로서는 최반장 바뀌달라는 전화를 한

11) (4)의 예는 말뚱치에서 추출한 용례가 아니라 설명의 편의를 위한 작례이다.

다는 것 자체가 감동스럽기까지 했다.

나. 어느 우등생이나 실력 좋은 선생님보다도 그가 훨씬 더 존경스럽게 여겨지고는 했었다.

다. 그가 염려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반면 심리를 나타내는 비실체성 어기에 결합된 ‘-스럽-’의 용례에서 (6)의 ‘감동스럽다’나 ‘존경스럽다’, ‘염려스럽다’는 주어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2.3. ‘-롭-’의 어기

앞선 연구에서는 ‘-롭-’이 결합되는 어기에 대해서는 그 말음이 모음이라는 점 외에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뭉치에 나타난 ‘-롭-’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롭-’의 어기들은 모두 비실체성의 의미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스럽-’의 어기와 마찬가지로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과 화자나 주어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뉜다.

(7) 가. 종전의 단조로운 화면, 의미를 캐내기에 너무 빠르고 긴 대사 대신에 그는 빠른 화면전개와 짧은 대화, 경쾌한 재즈음악 등으로 풍자와 웃음을 감각화시켰다.

나. 그러나 하순에는 UN과 이라크간 구호물자 분배 관련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으로 그 동안 보류되었던 이라크의 원유 수출이 조기에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다시 하락하였다.

다. 또한 16일에는 경기도 가평 소재 운악산에서 약 2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산제와 은행발전을 위한 산상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7)의 예들은 ‘-롭-’이 속성을 나타내는 어기에 결합된 것으로 (7가)에서 ‘단조롭다’는 ‘화면’의 속성을, (7나)에서 ‘순조롭다’는 ‘진행’의 속성을, (7다)에서 ‘다채롭다’는 ‘행사’의 속성을 나타낸다.

(8) 가. 그 경외로움이야말로 어떤 마술적인 영상조차 그려낼 수 없는 인상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나. 그들의 경이로운 삶과 그 속에 담긴 우리나라 고대사의 숭한 비밀들.

한편 (8)은 ‘-롭-’이 심리를 나타내는 어기에 결합된 경우이다. (8가)에서 ‘경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며 (8나)의 ‘경이’는 놀랍고 신기하게 여기는 화자의 심리를 나타낸다.

말뭉치에 나타난 속성 어기와 심리 어기의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롭-’은 거의 대부분 속성 어기에 결합되어 쓰이는 경향이 있다.

	유형 수	비율	예
속성	37	92.5%	고요, 공교, 다채, 따사, 사사, 상서, 순조, 슬기, 여유, 예사, 위태, 이채, 정의, 한가, 호화, ...
심리	3	7.5%	경외, 경이, 애처

<표-4> ‘-롭-’의 비실체성 어기의 하위 유형

3. 어기 공유 현상

‘-스럽-’과 ‘-롭-’의 어기들은 둘 중 하나의 접미사만 결합 가능하거나 둘 다 결합되기도 하며 ‘-하-’와 결합되어 쓰이기도 한다. 3장에서는 말뭉치에 쓰인 용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스럽-’, ‘-롭-’, ‘-하-’의 어기 공유 현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총 219개의 어기¹²⁾ 중 둘 이상의 접미사에 의해 공유될 수 있는 어기의 수와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기 공유가 가능한 경우가 118개로 53.9%에 해당되며 불가능한 경우가 46.12%인 101개로 조사 대상 어기의 절반 이상이 어기 공유 현상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계량적 분석 결과는 접미사 간의 어기 공유 현상이 실제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또한 어기 공유가 가능한 경우 중 어떤 접사 간의 어기 공유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순위	접사	유형 수 (비율)
1	-스럽-, -하-	85 (72.0%)
2	-스럽-, -롭-	22 (18.6%)
3	-롭-, -하-	8 (6.8%)
4	-롭-, -스럽-, -하-	3 (2.5%)

<표-5> 접사별 어기 공유 현상

<표-5>를 보면 전체 어기 공유 현상 중 ‘-스럽-’과 ‘-하-’의 어기 공유가 72.0%로 가장 많이 나타나며 1위와 2위에 해당되는 ‘-스럽-’과 ‘-하-’, ‘-스럽-’과 ‘-롭-’의

12) 219개는 ‘-스럽-’의 어기 182개와 ‘-롭-’의 어기 40개를 합하고 ‘-스럽-’과 ‘-롭-’의 어기 목록 중 중복되는 ‘명예, 자유, 신비’의 3개를 뺀 값이다.

여기 공유 현상이 전체 여기 공유 현상의 90% 이상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접미사 간의 여기 공유가 일어나는 원인이 ‘-스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이어서 3.1~3.2의 논의를 통해 ‘-하-’, ‘-롭-’이 ‘-스럽-’과 보이는 여기 공유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스럽-’의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3.3과 3.4에서 비록 그 수는 많지 않지만 ‘-롭-’과 ‘-하-’, ‘-롭-’, ‘-스럽-’, ‘-하-’의 여기 공유 현상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3.1. -스럽-, -하-

‘-스럽-’과 ‘-하-’의 여기 공유 현상에는 ‘-스럽-’ 대신 ‘-하-’가 올 때 품사가 달라지는 제1유형과 그대로 형용사로 유지되는 제2유형, 여기가 공유될 수 없는 제3유형의 세 유형이 있다¹³⁾. 각 유형에 해당되는 어기의 목록을 차례로 제시하면 (9)~(11)과 같다.

(9) <제1유형> X스럽-: 형, X하-: 동

가. 심리: 고뇌, 우려, 후회, 비판, 혼동, 감동, 감탄, 개탄, 달관, 염려, 절망, 혐오, 고민, 근심, 존경, 소망, 감격, 당혹, 원망, 실망, 만족, 사랑, 의심, 격정, 조심, 자랑

나. 속성: 저주, 과장, 야단, 충성, 고집, 장난, 고생

(10) <제2유형> X스럽-: 형, X하-: 형

가. 심리: 창피, 섬뜩, 어색, 불행, 황공, 거북, 미안, 송구, 죄송, 민망, 의아

나. 속성: 간사, 광포, 번다, 인자, 괴상, 궁색, 미련, 엉큼, 음흉, 순진, 심상, 우직, 조신, 천진, 태연, 후덕, 구차, 거만, 불량, 위험, 표독, 대견, 믿음직, 신통, 소란, 상냥, 신령, 요망, 용맹, 우람, 요란, 거추장, 먹음직, 신비, 다정, 바람직, 시원, 뻔뻔, 한심, 이상, 을씨년

(11) <제3유형> X스럽-: 형, *X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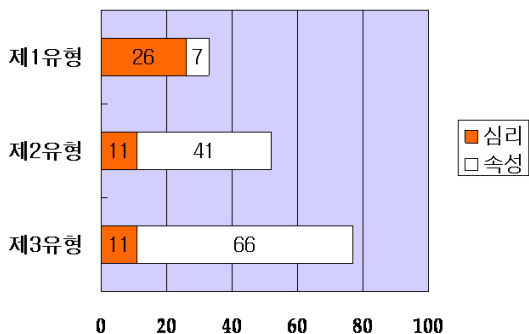
가. 심리: 고통, 곤경, 곤혹, 부담, 불만, 수심, 유감, 짜증, 치욕, 한, 수치

나. 속성: 애교, 요사, 부화, 불미, 수다, 요괴, 죄, 주체, 호사, 사치, 바보, 갑작, 고풍, 남우세, 능청, 덕성, 독살, 맛깔, 밍살, 변덕, 별, 복, 부자연, 불상, 새살, 새삼, 생광, 성, 수말, 심통, 양증, 양갈, 야만, 야짓, 양박, 억척, 영광, 외람, 외설, 우스꽝, 우악, 의논성, 의문, 이물, 익살, 인정, 자연, 잔망, 저질, 정성, 조심성, 탐, 탐욕, 평화, 허통, 허풍, 험상, 혼돈, 혼란, 흉물, 흉살, 남

13) 사실상 제3유형은 여기 공유가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 공유 현상의 유형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여기 공유가 불가능한 경우의 여기 목록을 제시하고 여기 유형에 따른 경향성을 살피기 위해 이를 제1유형, 제2유형과 함께 다루었다.

성, 병신, 속물, 여성, 영혼

이들 세 유형의 어기 공유 현상 중 어느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각 유형에 있어서 어기의 의미에 따른 경향이 발견되는지를 아래의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다.



<그래프-1> ‘-스럽-’, ‘-하-’에 의해 공유되는 어기의 유형별, 의미별 빈도

<그래프-1>을 보면 ‘-스럽-’만이 결합될 수 있고 어기 공유가 불가능한 제3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대부분은 속성 어기였다. 어기 공유가 가능한 경우 중에는 제2유형이 제1유형보다 더 많았는데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제2유형의 경우 대부분의 어기가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는 어기였다. 반면 ‘-하-’가 결합될 때 동사가 되는 제1유형은 거의 대부분이 주어의 심리를 나타내는 어기로 각 유형마다 어기의 의미에 따른 경향성을 보인다.

계량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1~3유형의 어기 공유 현상 각각에 대해 살펴보겠다. 나머지 두 유형이 주로 속성 어기로 구성된 반면 제1유형은 대부분 심리 어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다. 심리 어기는 화자의 내적인 움직임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 어기에 ‘-하-’가 결합되어 동사로 쓰일 수 있다.

한편, 품사가 달라지지도 않고 의미도 달라지지 않는데 ‘-하-’와 ‘-스럽-’에 모두 결합이 가능한 제2유형은 생성 이론에서 말하는 저지의 반례가 된다. ‘믿음직하다’와 ‘믿음직스럽다’, 혹은 ‘한심하다’와 ‘한심스럽다’는 그 의미가 같으면서도 두 접사에 의한 파생이 모두 가능하다. 앞선 연구들에서 ‘-스럽-’ 파생 형용사와 ‘-하-’ 파생 형용사의 의미를 다르게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심재기(1982: 381)에서는 ‘-스럽-’과 ‘-하-’가 어기를 공유할 때 ‘-스럽-’은 ‘-하-’보다 ‘미흡성’을 갖는다고 하며 ‘이혼한 부부가 다정하게 이야기한다’에서는 두 부부가 실제로 다정하다는 것이지만 ‘이혼한 부부가 다정스럽게 이야기한다’에서는 실제로 다정하지 않으면서

다정스럽게 이야기한다는 의미라 하였다. 그러나 실제 쓰인 용례들을 살펴보면 ‘-스럽-’의 의미가 ‘미흡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12)가. [황조가]와 관련한 설화를 문면대로 이해하면, 유리왕이 치회를 잃고 홀로 돌아오면서 꿰꼬리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느낀 자신의 외로운 심사를 토로하기 위해 노래를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가. 그것도 억지가 아니라 아주 포근하고 다정스러운 웃음이에요.

나. 그것을 나무라기 위해 창문을 열고 소리쳐야 하는 것도 한심한 일이에요, 못들은 체하고 강의나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도 딱한 일이다.

나. 수혜는 자신의 꼴이 한심스러워 세차게 도리질을 했다.

(12가)의 ‘다정하다’나 (12가)의 ‘다정스럽다’나 그 의미가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며 (12가)가 실제로는 다정하지 않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12나)와 (12나)의 ‘한심하다’, ‘한심스럽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스럽-’과 ‘-하-’가 여기를 공유하여 둘 다 형용사를 파생시킬 경우, 파생된 형용사의 명제적 의미는 차이가 없지만 ‘-하-’ 대신 ‘-스럽-’을 쓸 경우 어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중들이 ‘X하-’ 형용사의 ‘-하-’를 ‘-스럽-’으로 바꾸어 쓰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찍이 김창섭(1984: 152)의 논의에서 ‘-스럽-’은 다른 접미사들과 달리 보다 감각적인 면에서의 평가를 나타낸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스럽-’이 갖는 미묘한 차이를 화용적 기능인 헤지(hedge)로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¹⁴⁾

헤지는 레이코프(1972)에서 ‘sort of’와 같이 어떤 문장의 참과 거짓을 모호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제기된 것으로 그 후 개념적 변화 과정을 거쳐 왔다¹⁵⁾. 이 논의에서 ‘-스럽-’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헤지

14) 국어의 헤지 표현에 대한 연구에는 심은숙(2006)과 신명선(2006)이 있다. 이 두 논의는 모두 학술적인 글에서 사용된 헤지 표현에 대한 것으로 심은숙(2006)은 영어와 한국어 학술 텍스트의 헤지 사용 전략을 비교 연구하였고 신명선(2006)에서는 헤지의 개념적 발전 과정 및 헤지의 주요 특성들을 정리하고 국어 학술 텍스트에서의 헤지 사용 양상과 그 의미를 밝혔다. 한편 노은희(2006)에서는 ‘hedge’를 ‘울타리어’로 번역하고 그 기능을 간략히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들 앞선 연구에서는 ‘좀, 아마도, 거의, 비교적, 그리’ 등의 어휘와 ‘~중의 하나, ~은 것 같다’ 등의 표현, 수동태, 간접 인용 등을 국어의 헤지 표현으로 지적하였지만 접미사의 헤지 유발 기능은 이 연구에서 처음 논의되는 것이다.

15) 헤지의 언어학적 발견과 개념적 변화 과정은 신명선(2006: 154-157)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신명선(2006: 156)에 따르면 1970년대의 헤지 개념은 범주성의 완화에 있었으나 1980년대에 화용론 및 담화 분석에서 헤지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그 개념이

는 담화 화용적 분석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어떤 언어 표현의 정도를 약화시킴으로써 단정적인 인상을 피하고 명제 내용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다¹⁶⁾. 다음의 예들을 통해 ‘-스럽-’의 헤지 유발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다.

(13) 가.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좀 이상스럽거든요.
나. 나는 그의 말에 다소 실망스러웠다.

(13가)에서 화자는 ‘이상하다’나 ‘실망하다’라고 했을 때의 단정적인 어감을 약화시키고 부정적 태도를 완화시켜 표현하기 위해 ‘-스럽-’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13나)의 경우 실망했다는 점을 동사가 아닌 형용사로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심리 상태를 보다 완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화자의 헤지 유발 의도는 ‘-스럽-’ 파생 형용사 바로 앞에 쓰인 부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좀’이나 ‘다소’는 ‘-스럽-’과 함께 발화 내용의 정도성을 약화시켜준다.

심은숙(2006), 신명선(2006)의 논의를 살펴보면 학술적인 글에서 헤지 표현들이 사용되는 것은 강한 어조의 단언을 피함으로써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 등의 이유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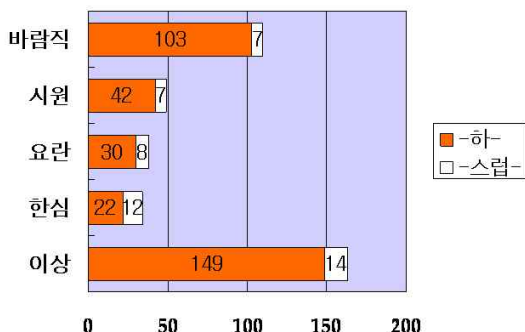
(14) 가. 4백 5 개 민간 단체들이 23일 ‘공명 선거 실현 민간 단체 연합’을 결성한 데 대해 우리는 다소 의아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다.(조선일보 사설)
나. 그러나 이번 의원들의 외유를 둘러싼 행태를 지켜 보노라면 실망감을 넘어 한심스럽다는 생각마저 갖게 된다.(동아일보 칼럼)
다. 문민정부 들어 그렇게도 요란스러웠던 사정과 개혁이 지나가는 바람에 불거졌던가 하는 실망감과 함께 은행의 대출부조리란 것이 도대체 구체 불가능한 태생적 고질이 아닌가 하는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한국일보 사설)

(14)의 예들은 비판조를 띠는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의 일부로, 단정적 표현인 ‘의아하다, 한심하다, 요란하다’ 대신 헤지를 유발하는 ‘-스럽-’을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강한 어감을 피하고 있다.

이러한 헤지의 유발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화자의 발화 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

화행론의 수행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16) 노은희(2006: 50), 신명선(2006), 심은숙(2006)을 참고하였다.



〈그래프-2〉 고빈도 어기와 ‘-하-’, ‘-스럽-’의 결합 비율 비교

〈그래프-2〉는 ‘-하-’와 ‘-스럽-’이 모두 결합 가능한 제2유형의 고빈도 어기 ‘바람직, 시원, 요란, 한심, 이상’이 말뭉치 상에서 어떤 접사와 더 많이 결합되어 쓰이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다섯 개의 어기 모두 ‘-스럽-’보다는 ‘-하-’와 결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의 쓰임에서 ‘-하-’ 대신 ‘-스럽-’이 선택되었다. 위의 분석 결과는 원래 ‘-하-’ 파생 형용사에 대해 화자가 표현을 완곡하게 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스럽-’을 사용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3.2. -스럽-, -롭-

앞 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스럽-’은 해지 유발의 화용적 기능으로 인해 다른 접미사가 주로 결합되어 쓰이는 어기에 선택적으로 결합되기도 한다. 이는 ‘-스럽-’과 ‘-롭-’의 어기 공유 현상에서도 확인된다. 먼저 ‘-롭-’과 ‘-스럽-’에 의해 공유될 수 있는 어기의 목록을 살펴보겠다.

(15) 명예, 수고, 경사, 인자, 호사, 신기, 자비, 한가, 영화, 예사, 자유, 평화, 호화, 경외, 경이, 풍요, 권태, 여유, 자애, 정의, 조화, 흥미

(15)의 목록 중 고빈도로 나타나는 ‘평화’와 ‘자유’가 두 접사에 결합된 예를 살펴보면 (16가)와 (16가'), (16나)와 (16나')에서의 의미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16)가. 잔설이 덮인 천연림 사이로 기기묘묘한 괴석이 수채화처럼 펼쳐지고 산까지들의 날갯짓이 마냥 평화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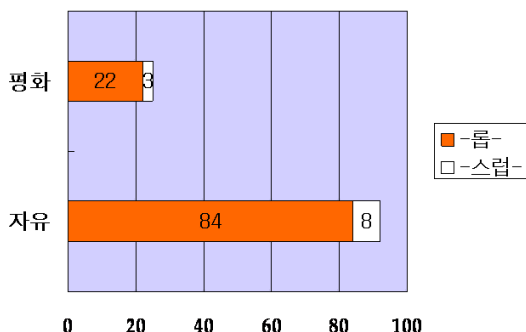
가'. 이 세상의 평화라는 평화는 모두 이 얼굴에서 우러나는 듯싶게 어린이의 잠자는 얼굴은 고요하고 평화스럽다.

나. 평등한 사람들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은 홍보와 같은 덜 민주적인 형식으로

대체되었다.

나. 아카데미의 학풍은 극히 자유스러웠으며 형식적으로는 정교적 결사(結社)로서 법인(法人)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말뭉치에서 이들이 ‘-롭-’과 ‘-스럽-’ 중 주로 어떤 접미사와 결합되어 쓰이는지 살펴본 결과, 아래의 그래프에서와 같이 ‘-롭-’과 결합되어 쓰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래프-3> 고빈도 어기와 ‘-롭-’, ‘-스럽-’의 결합 비율 비교

이처럼 ‘-롭-’과 ‘-스럽-’이 어기를 공유하는 경우의 주된 쓰임은 해당 어기가 ‘-롭-’과 결합되는 것이다. ‘-롭-’과 ‘-스럽-’에 의해 파생된 형용사의 의미는 차이가 없지만 ‘-롭-’ 대신 ‘-스럽-’을 쓸 경우 해지가 유발되어 화자의 표현적 욕구를 충족시키게 된다¹⁷⁾.

한편 ‘-스럽-’의 어기 중에는 어기 말음이 모음이고 어기 의미가 ‘속성’이면서도 절대 ‘-롭-’과 결합되어 쓰일 수 없는 것도 있다.

(17) 간사, 광포, 번다, 요사, 부화, 불미, 수다, 죄, 바보

이들 어기에는 ‘-스럽-’만 결합될 수 있고 ‘-롭-’은 결합될 수 없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스럽-’은 주로 부정적 어기에 결합되며 ‘-롭-’은 극히 일부의 예를 제외하고는 부정적 어기에 결합되지 않는데 이는

17) 저지를 빈도와 접사의 생산성의 관련성으로 설명한 이광호(2007: 216)에서는 ‘자유롭-’, ‘평화롭-’, ‘신비롭-’과 같은 고빈도 ‘-롭-’ 파생 형용사의 경우 그 의미에 대한 표현적 욕구가 자주 발생하고 화자는 이 의미를 단어로 표현하기 위해 ‘-스럽-’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표-1>에 제시된 ‘-롭-’의 고빈도 어기 10개 중 ‘슬기, 다채, 순조, 감미’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스럽-’이 결합되어 쓰일 수 있다.

이들 접미사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롭-’은 중세국어에도 존재했던 접미사이며 ‘-스롭-’은 근대국어에 와서 생겨난 접미사인데 근대국어 자료에서 ‘-스롭-’이 ‘-롭-’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하는 예들이 나타난다. 석주연(2001: 58)에서 제시한 예를 살펴보겠다.

- | | |
|--------------------------|-----------------------|
| (18) 가. 원슈로이(명의록언해 1:12) | 가'. 원슈스롭다(방언유석 3:13) |
| 나. 녀녀롭소(교정교린수지 33) | 나'. 녀녀스롭스외다(교정교린수지35) |
| 다. 페로이(인어대방 4:6) | 다'. 페스롭다(정정인어대방 1:7) |
- (석주연 2001: 58)

석주연(2001: 58)에서는 이러한 예들의 공통점이 부정적 의미의 명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부정적 의미의 어기에서부터 ‘-스롭-’이 ‘-롭-’의 영역을 침범해가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현대국어에서도 ‘-스롭-’은 다른 접미사들과 달리 부정적 의미의 어기에 결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롭-’과 달리 ‘-스롭-’은 명제 내용을 모호하게 하고 판단을 유보시키는 헤지 표현의 효과를 갖기 때문에 부정적 의미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작용하면 ‘-롭-’ 대신 ‘-스롭-’이 선택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3. -롭-, -하-

‘-롭-’ 파생 형용사의 목록을 대상으로 ‘-하-’와의 어기 공유 현상을 살펴보면 ‘-롭-’이 결합될 때에는 형용사가 파생되는데 ‘-하-’가 결합되면 동사가 파생되는 제1유형, 둘 다 형용사가 파생되는 제2유형, ‘-하-’가 결합될 수 없는 제3유형이 있다. 각각의 유형이 말뭉치에 나타난 빈도를 살펴본 결과, 앞서 살펴본 ‘-스롭-’, ‘-하-’의 경우처럼 어기 공유가 불가능한 제3유형이 23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제2유형이 6회 나타났으며 ‘-하-’가 결합되면 동사가 되는 제1유형은 2회로 가장 적었다. 이어서 각 유형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하-’가 결합될 때 동사가 되는 제1유형 어기는 다음과 같다.

- (19) <제1유형> X롭-: 형, X하-: 동
심리: 경외, 경이

이들은 모두 ‘심리’를 나타내는 의미적 특징을 가지며 ‘속성’의 의미를 갖는 여타의 어기의 경우 ‘-하-’가 결합되어 동사가 되는 경우는 없었다. 한편, ‘-롭-’이 결합되나 ‘-하-’가 결합되나 모두 형용사가 파생되는 제2유형 어기는 모두 대상의 속성

을 나타내는 어기들이다.

(20) <제2유형> X롭-: 형, X하-: 형

속성: 고요, 따사, 위태, 자비, 풍요, 한가

같은 어기에 ‘-롭-’과 ‘-하-’가 결합되어 파생된 형용사들의 용례를 살펴보면 접미사는 다르지만 파생된 형용사의 의미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21)가. <...> 이제 전과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는 이상 과거의 풍요한 미국을 다시 찾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가'. 여기서 [구지가]가 풍요로운 농사를 예비하거나 임금을 맞이하기 위한 곳에서 불려졌음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나. 얼핏 위태하게 보이지만 웬만한 비바람에도 끄덕하지 않습니다.

나'. 막내아들 무돌이가 위태로운 나룻배를 타고 그 강을 건너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다. 집안은 하루도 고요할 날이 없었다.

다'. 오랫동안 잊고 지낸 고요로움이었다.

위의 (21가), (21나), (21다)는 (21가'), (21나'), (21다')와 의미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지만 ‘풍요하다’에 비해 ‘풍요롭다’, ‘위태하다’에 비해 ‘위태롭다’가 더 자연스럽고 ‘고요롭다’에 비해서는 ‘고요하다’가 더 자연스럽다. 이는 둘 중 어느 한쪽의 사용이 보다 주된 쓰임이기 때문인데 말뭉치에서도 이 점이 확인된다¹⁸⁾.

마지막으로 어기 공유가 불가능하고 ‘-롭-’에만 결합되어 쓰이는 제3유형 어기는 아래와 같다.

(22) <제3유형> X롭-: 형, *X하-

속성: 감미, 권태, 대수, 명예, 사사, 상서, 순조, 슬기, 여유, 영화, 예사, 이채, 임의, 자애, 자유, 정의, 조화, 지혜, 평화, 풍미, 향기, 호화, 흥미

(22)에 나타난 어기들은 모두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지만 제2유형과 달리 ‘-하-’와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제2유형 어기들과 제3유형 어기들이 둘 다 속성의 의미를 가지면서도 결합되는 접미사가 다른 것은 개별 어기들의 어휘 역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 ‘풍요’는 총 21회의 쓰임 중 15회가 ‘-롭-’과 결합되어 쓰였으며 ‘위태’는 10회의 쓰임 중 7회가 ‘-롭-’과 결합된 쓰임이었다. 반면 ‘고요’의 경우는 33회의 쓰임 중 단 1회만 ‘고요롭다’로 쓰였고 나머지 32회가 모두 ‘고요하다’로 나타났다.

3.4. -롭-, -스럽-, -하-

분석 대상 어기 중 ‘-롭-’, ‘-스럽-’, ‘-하-’에 의해 모두 공유될 수 있는 어기도 있었다.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23) 수고, 신비, 신기

‘수고’는 ‘-하-’와 결합되면 동사가 되지만 ‘신비’나 ‘신기’는 ‘-하-’와 결합되어도 형용사로 쓰인다. 세 접미사가 결합되어 모두 같은 의미의 형용사가 파생되는 ‘신기’나 ‘신비’의 경우, 이들 어기가 어떤 접미사와 자주 결합되어 쓰이는지를 살펴본 결과, ‘신기’는 ‘-하-’와 21회, ‘-롭-’과 7회, ‘-스럽-’과 5회 결합되어 쓰였으며 ‘신비’는 ‘-하-’와 45회, ‘-롭-’, ‘-스럽-’과는 1회씩 결합되어 쓰여 두 경우 모두 ‘-하-’와의 결합이 주된 쓰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현대국어 문어 말뭉치에서의 ‘-스럽-’, ‘-롭-’의 쓰임을 분석하고 이 두 접미사와 ‘-하-’의 어기 공유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 접미사 간의 어기 공유 현상은 ‘-스럽-’과 ‘-하-’, ‘-스럽-’과 ‘-롭-’ 사이의 어기 공유 현상이 주를 이룬다. 이 두 경우 모두 대개의 쓰임에서 해당 어기는 ‘-롭-’이나 ‘-하-’와 결합되어 쓰이며 극히 일부의 쓰임에서 이들의 어기에 ‘-스럽-’이 결합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롭-’이나 ‘-하-’와 달리 ‘-스럽-’은 형용사 파생의 문법적 기능을 갖는 동시에 화용적으로 헤지(hedge)를 유발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화자가 표현을 완곡하게 하고자 할 때 ‘-롭-’이나 ‘-하-’ 대신에 ‘-스럽-’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스럽-’이나 ‘-롭-’이 ‘-하-’와 어기를 공유할 경우 대체로 심리 어기는 ‘-하-’가 결합되면 동사가 되고 속성 어기는 형용사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기존에 일부 작례를 대상으로 다루어졌던 어기 공유 현상에 대해 대량의 말뭉치를 분석하여 그 실제 쓰임이 어떠한가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앞선 연구들에서 주로 의미의 관점에서만 다루어졌으며 일부 논의에서 ‘보다 감각적인 면에서의 평가’ 혹은 ‘표현적 욕구’ 등으로 언급되었던 ‘-스럽-’의 기능을 헤지로 파악하고 계량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 타당성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논 제

- 권숙렬(1984), 「『답, 룬, 슥』에 대하여」, 『새국어교육』 39, 12-29.
- 김창섭(1984), 「形容詞 派生 接尾辭들의 機能과 意味-‘-답-, -스럽-, -롭-, -하-’와 ‘-的, 의 경우-」, 『진단학보』 58, 145-161.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김형정(2006), 「韓國語における<ワ(wa)>格補足語の分布及び特性」, 『朝鮮語研究會 發表文』(大阪), 1-20.
-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 노은희(2006), 「일상 대화에 나타난 발화의 “예고 표현”에 관한 연구 -드라마 자료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20, 47-78.
- 레이코프(G. Lakoff)(1972), “Hedges: A Study in Meaning Criteria and the Logic of Fuzzy Concepts,”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2. 458-508.
- 민현식(1984), 「‘-스럽다, -롭다’ 접미사에 대하여」, 『국어학』 13, 95-118.
- 서상규·한영균(1999), 『국어정보학 입문』, 태학사.
- 석주연(2001), 「국어 형용사의 어휘사: 파생형용사의 어휘사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9, 49-64.
- 송철의(1988),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의 제약현상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9, 309-333.
- 신명선(2006), 「국어 학술텍스트에 드러난 헤지(hedge) 표현에 대한 연구」, 『배달말』 38(배달말학회), 151-180.
- 심은숙(2006), 「Hedging Strategies in Scientific Research Texts」, 『영어영문학연구』 47-4(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197-220.
- 심재기(1982), 『國語語彙論』, 집문당.
-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이광호(2007), 『국어 파생 접미사의 생산성에 대한 계량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익환(2000), 『영어의미론』, 한국문화사.
- 전상범(2006), 『형태론개론』, 한국문화사.
- 정연주(2007), 「형용사 형성 접미사의 통시적 변화 -‘-되-’, ‘-롭-’, ‘-스럽-’, ‘-답-’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현배(1955), 『우리말본(집고 고침)』, 정음문화사.
- 허 웅(2000),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고친판)』, 샘문화사.

<별첨1> 연구대상 ‘-스럽-’ 어기 목록(가나다순, 총 182개)

가증, 간사, 감격, 감동, 감탄, 갑작, 개탄, 거만, 거북, 거추장, 걱정, 경사, 고급, 고뇌, 고민, 고생, 고집, 고통, 고풍, 곤경, 곤혹, 과장, 광포, 괴상, 구차, 궁색, 극성, 근심,

남성, 남우세, 낭패, 능청, 다정, 다행, 달관, 당혹, 대견, 덕성, 독살, 만족, 맛깔, 먹음
 직, 명예, 물품, 미련, 미안, 민망, 믿음직, 밍살, 바람직, 바보, 번다, 번덕, 별, 병신,
 복, 부담, 부자연, 부자유, 부화, 불경, 불량, 불만, 불미, 불상, 불행, 비관, 비밀, 뻔뻔,
 사랑, 사치, 상냥, 새살, 새삼, 생광, 섬뜩, 성, 소란, 소망, 속물, 송구, 수고, 수다, 수
 말, 수선, 수심, 수치, 순지느릅다, 시뻘장, 시원, 신령, 신비, 신산, 신통, 실망, 심상,
 신통, 양증, 양갈, 애교, 야단, 야만, 야짓, 양박, 어색, 억척, 엉큼, 여성, 염려, 영광,
 영혼, 외람, 외설, 요괴, 요란, 요망, 요사, 용맹, 우람, 우려, 우스꽝, 우악, 우직, 원망,
 위험, 유감, 을씨년, 음흉, 의논성, 의문, 의뭉, 의심, 의아, 이물, 이상, 익살, 인자,
 인정, 자랑, 자연, 자유, 잔망, 장난, 저주, 저질, 절망, 정성, 조신, 조심성, 조심, 존경,
 죄송, 죄, 주체, 짜증, 창피, 천연, 천진, 충성, 치욕, 탐, 탐욕, 태연, 통명, 평화, 표독,
 한, 한심, 허통, 허풍, 험상, 험오, 호사, 혼돈, 혼동, 혼란, 화평, 황공, 후덕, 후회, 흥
 물, 흉살

<별첨2> 연구대상 ‘-롭-’ 어기 목록(가다다순, 총 40개)

감미, 경외, 경이, 고요, 공교, 권태, 다사, 다채, 단조, 대수, 따사, 명예, 무위, 사사,
 상서, 순조, 슬기, 신기, 신비, 신이, 애처, 여유, 영화, 예사, 위태, 이채, 임의, 자비,
 자애, 자유, 정의, 조화, 지혜, 평화, 풍미, 풍요, 한가, 향기, 호화, 흥미

An. Yelee, 2008. Base Sharing Phenomenon of Adjective Derivational Suffixes, *Morphology* 10.1. 63-83. The Korean derivational suffixes ‘-*sûrôp*-’, ‘-*lop*-’, ‘-*ha*-’ could be combined with the same base. These cases are counter examples to blocking. This paper discusses base sharing phenomenon of ‘-*sûrôp*-’, ‘-*lop*-’, ‘-*ha*-’ based on the corpus analysis.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usages in corpus shows that more than 90% of base sharing phenomena are the one between “-*sûrôp*-” and “-*ha*-”, and “-*sûrôp*-” and “-*lop*-”. We consider the pragmatic function of ‘-*sûrôp*-’ as a hedge and explain that the base sharing phenomenon is highly related with the function of ‘-*sûrôp*-’ as a hedge induction. In addition, we classify the features of base into emotion and property and examine its relation with the base sharing phenomenon.

Key words: -*sûrôp*-, -*lop*-, -*ha*-, hedge, base sharing phenomenon

안예리(安禮利)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420-70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꿈동산 신안아파트 1907동 1204호

전화: 032-321-4919

E-mail: cherryyelee@hanmail.net

(2007. 12. 18. 원고 받고, 2008. 01. 24. 신기로 함)